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년 3월 12일

회 사 명 : 유진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종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457(삼정동)
(전 화) 032-677-5111
(홈페이지)<http://www.eugene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김진구
(전 화) 02-3704-33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여러분께

주주 여러분의 덕내평안과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3월 27일(금요일) 오전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 고려호텔 3층

3. 회의목적사항

가.보고사항 : 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6기(2019년1월1일~2019년12월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신현식 선임의 건(신규선임)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정렬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배당내역

-. 보통주 : 1주당 150원(액면가 대비 30%)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조의 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 등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지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genes.co.kr>) 및 본지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457

유진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종성(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진호 (출석률: %) 찬반여부
1회차	2019.01.04	신규차입의 건	참석(찬성)
2회차	2019.01.17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참석(찬성)
3회차	2019.01.18	2018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참석(찬성)
4회차	2019.02.26	제35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참석(찬성)
5회차	2019.02.27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참석(찬성)
6회차	2019.03.08	관계사 대여 만기연장의 건	-
7회차	2019.03.12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참석(찬성)
8회차	2019.03.22	신규차입의 건	참석(찬성)
9회차	2019.03.29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 거래 승인의 건	-
10회차	2019.04.11	한국통운(주)에 대한 추가 출자의 건	참석(찬성)
11회차	2019.04.18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참석(찬성)
12회차	2019.05.07	EMP Belstar 제안에 관한 승인의 건	참석(찬성)
13회차	2019.05.09	(주)지구레미콘 담보 제공의 건	참석(찬성)
14회차	2019.05.09	차입금 대한 및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체결의 건	참석(찬성)
15회차	2019.06.24	산업 운영자금대출 대환의 건	참석(찬성)
16회차	2019.07.04	관계사 대여의 건	-
17회차	2019.07.10	유진로텍 대출금 자금보충약정의 건	참석(찬성)
18회차	2019.07.17	차입 재약정의 건	참석(찬성)
19회차	2019.07.18	산업운영자금대출 대환의 건	참석(찬성)
20회차	2019.07.24	관계사대여 만기연장의 건	-
21회차	2019.07.30	관계사 대여의 건	-
22회차	2019.08.01	퇴직임원 퇴직금 지급의 건	참석(찬성)
23회차	2019.08.09	성인산업 신규차입금 연대보증의 건	참석(찬성)
24회차	2019.09.02	유진초저온 보유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의 건	참석(찬성)
25회차	2019.10.11	유진개발(주) 유상증자에 대한 출자의 건	-
26회차	2019.10.25	타법인 채무에 대한 법인입보 약정 연장의 건	참석(찬성)
27회차	2019.10.29	차입금 만기연장의 건	-
28회차	2019.11.29	유진로텍 대출금 자금보충약정의 건	참석(찬성)
29회차	2019.12.13	계열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30회차	2019.12.19	유진로텍 대출금 자금보충 약정의 건	참석(찬성)
31회차	2019.12.23	차입금 만기연장의 건	-
32회차	2019.12.26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참석(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9,000	7	7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보수한도 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레미콘산업]

(1) 산업의 특성

① 레미콘 산업의 개요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시멘트, 골재, 혼화제 등의 재료를 이용, 전문적인 콘크리트 생산공장에서 제조한 후 트럭믹서(Truck Mixer) 또는 에지테이터트럭(Agitator Truck)을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를 의미한다.

② 레미콘 산업의 특성

첫째, 지역형 산업으로, 제품 생산 후 레미콘 트럭은 90분, 덤프트럭은 6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가 영업권으로 국한된다. 레미콘 제품이 한시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후 9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본 제품의 시장권역을 형성하므로 지역형 산업의 특성을 강하게 가진다.

둘째, 한시적, 무재고의 제품 특성으로 인하여 주문에 의하여 생산, 공급하는 주문형 산업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일반 제조업에 비하여 가동율이 저조한 편이며, 수요에 대하여 공급이 비탄력성 산업이다.

셋째, 도시형 산업으로 건설 공사의 발주가 대부분 인구가 집중된 도심에서 발생하므로 한시적 제품 특성상 도시권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도시 집중형 산업이다.

넷째, 물적 유통이 중요한 산업이다. 레미콘 제품은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의 원재료를 공장으로 운송, 제조 공정을 거친 후 레미콘 트럭으로 제한 시간 내 건설 현장에 운송하므로 제조업과 운송업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통상 원가 내 운송비용이 10~15%를 차지하므로 R/T(Remicon Truck) 수송능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므로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 여부가 산업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990~1992년 사이에 시멘트 파동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부족 현상의 심화가 야기되었으나, 현재 시멘트는 생산사들의 과잉 증설로 인하여 조달에 관하여는 별 문제가 없다.

③ 레미콘 산업의 발전과정

한국 레미콘 산업은 1965년 7월에 준공된 대한 양회공업(주) 서빙고 공장(후에 쌍용양회공업(주)로 합병)으로서, 생산 능력은 500m³/일(180천m³/년)이었으며, 운반장비는 일본에서 수입한 Truck Mixer 15대였다.

이후 1969년에 쌍용양회공업(주)의 원효로 공장이 가동되게 되었고 1973년에 들어서는 삼표산업(주)성수동 공장, 한국 포장건설 염창동 공장, 진성레미콘 교문리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시멘트업계 및 골재업계에서도 원료의 자가소비 수단 및 판로확대를 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멘트의 경우는 유통 및 소비구조합리화를 위한 벌크시멘트의 소비 확충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해외 건설경기의 퇴조에 따른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주로 시멘트 2차 가공업체를 비롯한 중소업체의 참여가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어 연평균 20%이상의 급격한 수요 증가현상을 보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사회간접자본확충, 서해안개발, 지하철건설, 88올림픽 특수등으로 인하여 신규업체의 참여가 지속되어 연간 100여개의 공장이 증설되었다. 1990년대 이후 5개지역 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주택건설,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로 레미콘 파동이라는 기현상까지 나타났으나 IMF위기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와 건설투자 감소로 레미콘산업 전반에 걸쳐 한동안 침체가 가중되었으나 이후 월드컵의 특수와 경기회복에 힘입어 크나큰 성장세를 이룩하였다.

최근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 호황으로 레미콘 시장 규모가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고, 꾸준한 주택 수요 증가와 경기진작 효과를 가져올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산업의 성장성

- 최근 5년간 생산능력 및 출하실적 추이 (단위:천m³/년)

연도별	업체수	공장수	생산능력	출하실적
2014년	806	976	553,340	136,445
2015년	835	1,001	575,860	152,154
2016년	864	1,028	593,360	171,519
2017년	889	1,050	611,020	174,291
2018년	905	1,066	626,500	155,726

*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서 매년 발행하는 레미콘통계년보의 연도별 레미콘산업 성장추이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음.[생산능력은 연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3)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형 산업으로, 레미콘은 수요처인 건설산업의 동향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철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을 지닌다. 보통 비수기는 1~2월, 7~8월 장마기간이며, 그외 기간은 성수기로 볼 수 있는데, 특히 4~6월, 추석 전 20여일이 최고 성수기를 이룬다.

(4) 경쟁요소

레미콘 생산 프로세스가 비교적 단순하고 설비투자 규모가 작으며 소비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으로 인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투자 기대감 및 사업전망이 밝다고 판단한 중소기업체의 대거 참여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던 레미콘 공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이러한 산업 진입에는 독자적인 신규 참여업체 이외에도 기존의 콘크리트파일, 흙관, 아스콘, 벽돌, 브릭등의 시멘트 가공업체 및 골재업체, 건설업체 등 유사관련 업체가 원료의 자가 소비수단 및 사세 확장 방안으로서 참여가 용이한점을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5) 자원 조달의 특성

원자재가 레미콘 제품의 매출구성에 있어서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원자재의 조달은 레미콘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원자재는 시멘트, 모래, 자갈로 구성된다. 시멘트는 생산설비 자체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한 시

설을 필요한 제품이라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회사는 동양, 쌍용 등 10개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시멘트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조달하고 있다. 모래 및 자갈은 1970년대까지 주종을 이루던 강모래, 강자갈이 1980년대 이후 점차 고갈되기 시작하여 쇄석골재, 육골재, 해안골재 등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골재원이 점차 원거리화되어 운반비가 증가하여 조달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레미콘사별로는 원가절감 및 원재료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을 겸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공업입지기준고시):

레미콘 공장의 입지선정, 생산설비 설치 및 등록에 관한 규정

②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환경부):

레미콘의 제조, 유통등에서 대기,수질 및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 규제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레미콘부문]

- 당사는 수도권내 최적의 공장위치와 최근 수년간 동업계 계열사를 합병함으로써 업계 최고수준의 영업력, 품질개선 능력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위주 성장전략, 전사 차원의 구조조정 노력 등 사업 효율성 극대화 추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으로 최근 몇년간 호실적을 이어왔으나, 2018년도는 건설경기가 다소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며, 전년대비 4.5% 감소한 전체매출 527,357백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기타부문]

- 레미콘부문을 제외한 기타부문의 매출은 전자재유통 253,967백만원, 골재 8,472백만원 등 총 279,641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 시장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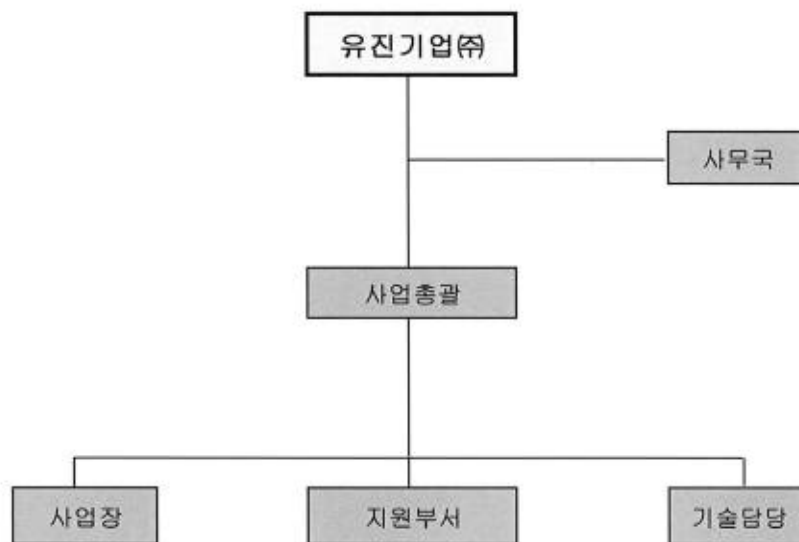
동 산업은 제품의 한시성으로 원거리 수송이 어려운 점 때문에 공장과 수요지가 인접해 있어야만 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업체가 전

국에 산재해 있어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4) 조직도



유진기업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부분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연결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을 포함한 하기의 내용은 본 공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①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대 차 대 조 표(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6 기 2019. 12. 31 현재

제 35 기 2018. 12. 31 현재

유진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자산		
Ⅰ. 유동자산	420,730,592,756	467,444,050,533
(1)현금및현금성자산	108,861,716,551	153,521,577,699
(2)재고자산	9,667,723,671	9,725,072,061
(3)매출채권및기타채권	234,878,951,140	252,554,582,044
(4)기타의 유동자산	67,322,201,394	51,642,818,729
Ⅱ. 비유동자산	1,191,384,656,382	1,250,780,411,789
(1)유형자산	420,957,648,017	426,992,200,897
(2)투자부동산	268,649,812,762	270,823,176,930
(3)무형자산	45,698,321,670	41,659,936,242
(4)관계기업 투자	396,185,200,247	429,988,055,712
(5)기타비유동자산	59,893,673,686	81,317,042,008
Ⅲ. 금융업자산	2,899,588,286,599	2,417,106,842,565
자산총계	4,511,703,535,737	4,135,331,304,887
부채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I. 유동부채	637,145,070,158	800,959,201,773
II. 비유동부채	342,167,061,681	234,036,616,100
III. 금융업부채	2,756,986,666,033	2,320,141,740,813
부채총계	3,736,298,797,872	3,355,137,558,686
자본		
I. 자본금	38,655,431,500	38,561,033,500
II. 자본잉여금	482,336,722,052	481,667,674,968
III. 자본조정	(26,517,771,608)	(40,573,764,197)
IV. 기타자본	(3,777,018,618)	(18,666,848,213)
V. 적립금	12,391,338,253	11,295,532,333
VI. 이익잉여금	266,258,581,217	284,272,358,506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69,347,282,796	756,555,986,897
비지배지분	6,057,455,069	23,637,759,304
자본총계	775,404,737,865	780,193,746,201

② 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6 기 2019. 12. 31 현재

제 35 기 2018. 12. 31 현재

유진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I. 매출액	1,457,766,682,614	1,451,043,142,582
- 비금융업	1,150,923,692,001	1,177,994,366,483
- 금융업	306,842,990,613	273,048,776,099
II. 매출원가	(1,184,460,691,087)	(1,178,361,276,171)
- 비금융업	(1,008,930,502,079)	(1,006,421,542,719)
- 금융업	(175,530,189,008)	(171,939,733,452)
III. 매출총이익	273,305,991,527	272,681,866,411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IV. 판매비와 관리비	(144,189,340,809)	(141,819,415,193)
V. 영업이익(손실)	129,116,650,718	130,862,451,218
VI. 기타수익	20,648,354,580	15,840,245,129
VII. 기타비용	(56,186,818,628)	(57,147,563,088)
VIII. 금융수익	3,535,225,855	15,315,520,594
IX. 금융비용	(56,424,914,942)	(62,949,965,987)
X. 지분법이익	14,644,355,370	7,605,502,547
XI.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55,332,852,953	49,526,190,413
XII. 법인세비용(수익)	33,761,230,223	21,687,124,918
XIII. 중단영업이익(손실)	-	(1,257,411,998)
XIV. 당기순이익(손실)	21,571,622,730	26,581,653,497
XV. 기타포괄손익	1,113,272,279	(4,655,906,049)
XVI. 총포괄손익	22,684,895,009	21,925,747,448
XVII. 당기순이익의 귀속	21,571,622,730	26,581,653,497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1,852,499,819	23,411,516,448
비지배지분	(280,877,089)	3,170,137,049
XVIII. 총포괄이익의 귀속	22,684,895,009	21,925,747,448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2,974,674,574	18,757,827,684
비지배지분	(289,779,565)	3,167,919,764

③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36 기 2019. 12. 31 현재

제 35 기 2018. 12. 31 현재

유진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자본	적립금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2018년 1월 1일 (전기초)	37,750,685,000	458,039,285,785	(41,723,991,697)	(8,167,992,040)	10,258,543,693	272,218,086,225	728,374,616,966	14,809,727,467	743,184,344,433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자본	적립금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K-IFRS 1115 최초 적용에 따른 조정(세후)	-	-	-	-	-	1,634,599	1,634,599	-	1,634,599
K-IFRS 1109 최초 적용에 따른 조정(세후)	-	-	-	(10,702,895,854)	-	5,886,962,581	(4,815,933,273)	(85,504,380)	(4,901,437,653)
관계기업의 회계변경효과	-	-	-	192,306,861	-	(1,415,827,036)	(1,223,520,175)	-	(1,223,520,175)
2018년 1월 1일 (조정후)	37,750,685,000	458,039,285,785	(41,723,991,697)	(18,678,581,033)	10,258,543,693	276,690,856,369	722,336,798,117	14,724,223,087	737,061,021,20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23,411,516,448	23,411,516,448	3,170,137,049	26,581,653,497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3,208,142,935)	(3,208,142,935)	40,367,616	(3,167,775,31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375,052,470)	-	-	(375,052,470)	(42,584,901)	(417,637,371)
파생상품평가손익	-	-	-	(180,751,393)	-	-	(180,751,393)	-	(180,751,393)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재측정요소)	-	-	-	-	-	(838,158,589)	(838,158,589)	-	(838,158,589)
지분법자본변동(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56,473,030	-	-	56,473,030	-	56,473,030
지분법자본변동(당기순익 공정가치인식지정금융부채)	-	-	-	(13,232,196)	-	-	(13,232,196)	-	(13,232,196)
지분법자본변동(해외사업환산손익)	-	-	-	(94,824,211)	-	-	(94,824,211)	-	(94,824,211)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607,387,240)	-	(4,046,301,524)	(4,663,688,764)	(2,217,285)	(4,655,906,049)
총포괄손익 합계	-	-	-	(607,387,240)	-	19,365,214,924	18,757,827,684	3,167,919,764	21,925,747,44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종속기업지분의 취득	-	-	-	-	-	-	-	5,745,616,453	5,745,616,453
자기주식의 처분	(1,150,227,500)	-	1,150,227,500	-	-	-	-	-	-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1,960,576,000	23,645,820,693	-	-	-	-	25,606,396,693	-	25,606,396,693
연결자본잉여금의 변동	-	(17,431,500)	-	-	-	-	(17,431,500)	-	(17,431,500)
이익잉여금의 법정적립금 적립	-	-	-	-	1,036,968,640	(1,036,968,640)	-	-	-
배당금의 지급	-	-	-	-	-	(10,369,886,400)	(10,369,886,400)	-	(10,369,886,4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등	-	-	-	586,883,857	-	(586,883,857)	-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	-	29,138,053	-	(29,138,053)	-	-	-
관계기업의 지배력 획득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	-	-	-	-	-	(21,528,756)	(21,528,756)	-	(21,528,756)
관계기업의 지배력획득으로 인한 변동	-	-	-	3,098,150	-	260,712,919	263,811,069	-	263,811,06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810,348,500	23,628,389,183	1,150,227,500	619,120,060	1,036,968,640	(11,783,712,787)	15,461,361,096	5,745,616,453	21,206,977,549
2018년 12월 31일 (전기말)	38,561,033,500	481,667,674,968	(40,573,764,197)	(18,666,848,213)	11,295,532,333	284,272,358,506	756,555,986,897	23,637,759,304	780,193,746,201
2019년 1월 1일 (당기초)	38,561,033,500	481,667,674,968	(40,573,764,197)	(18,666,848,213)	11,295,532,333	284,272,358,506	756,555,986,897	23,637,759,304	780,193,746,20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21,852,499,819	21,852,499,819	(280,877,088)	21,571,622,730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884,155,244	884,155,244	(8,902,476)	875,252,768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재측정요소)	-	-	-	-	-	(455,036,453)	(455,036,453)	-	(455,036,453)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98,061,684	-	-	98,061,684	-	98,061,684
파생상품평가손익	-	-	-	(230,970,568)	-	-	(230,970,568)	-	(230,970,568)
지분법자본변동(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409,240,586	-	-	409,240,586	-	409,240,586
지분법자본변동(당기순익 공정가치인식지정 금융부채)	-	-	-	88,821,317	-	-	88,821,317	-	88,821,317
지분법자본변동 (해외사업환산손익)	-	-	-	327,902,945	-	-	327,902,945	-	327,902,945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자본	적립금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693,055,964	-	429,118,791	1,122,174,755	(8,902,476)	1,113,272,279
총포괄손익 합계	-	-	-	693,055,964	-	22,281,618,610	22,974,674,574	(289,779,565)	22,684,895,00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94,398,000	980,662,560	-	-	-	-	1,075,060,560	-	1,075,060,56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등	-	-	-	(102,520,475)	-	102,520,475	-	-	-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 처분	-	-	-	14,288,058,665	-	(14,288,058,665)	-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11,235,441	-	-	11,235,441	-	11,235,441
이익잉여금의 법정적립금 적립	-	-	-	-	1,095,805,920	(1,095,805,920)	-	-	-
배당금의 지급	-	-	-	-	-	(10,958,059,200)	(10,958,059,200)	(4,271,055,606)	(15,229,114,806)
이익잉여금 처분	-	-	14,055,992,589	-	-	(14,055,992,589)	-	-	-
종속기업의 유상감자	-	(222,754,336)	-	-	-	-	(222,754,336)	(13,137,745,664)	(13,360,500,000)
종속기업의 취득	-	(88,861,140)	-	-	-	-	(88,861,140)	118,276,600	29,415,46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94,398,000	669,047,084	14,055,992,589	14,196,773,631	1,095,805,920	(40,295,395,899)	(10,183,378,675)	(17,290,524,670)	(27,473,903,345)
2019년 12월 31일 (당기말)	38,655,431,500	482,336,722,052	(26,517,771,608)	(3,777,018,618)	12,391,338,253	286,258,581,217	789,347,282,796	6,057,455,089	775,404,737,865

④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36 기 2019. 12. 31 현재

제 35 기 2018. 12. 31 현재

유진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5,850,516,302	76,427,708,017
1. 당기순이익(손실)	21,571,622,730	26,581,653,497
2. 조정	(52,055,446,038)	(40,021,433,391)
3. 자산, 부채의 증감	(133,161,709,323)	(93,882,292,143)
4. 이자의 수취(금융업)	275,424,422,193	244,477,305,283
5. 이자의 지급(금융업)	(54,028,774,002)	(46,793,589,574)
6. 배당금의 수취(금융업)	9,454,346,089	3,272,742,521
7. 법인세의 환급(납부)	(21,353,945,347)	(17,206,678,17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711,564,036)	(27,466,655,931)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6,246,426,201)	23,549,014,556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64,107,473,935)	72,510,066,642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09,304,186,449	136,759,659,761
VI. 환율변동효과	(4,530,278)	34,460,046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IV+V)	145,192,182,236	209,304,186,449

⑤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당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유진기업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유진기업주식회사("지배기업")는 레미콘의 제조, 판매와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1984년 6월 1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사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457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천 및 수도권지역 내외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4년 9월 30일에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보통주 38,655,432천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유경선	8,919,594	11.54
유창수	5,295,857	6.85
유순태	3,389,412	4.38
유재필	1,919,916	2.48
유석훈	2,365,259	3.06
구금숙	1,839,456	2.38
유정윤	120,152	0.16
유정민	123,246	0.16
유승연	4,370	0.01
유정연	4,420	0.01
유동진	222,400	0.29
유호성	217,157	0.28
노시은	210,000	0.27
이정화	205,000	0.27
최종성	32,654	0.04
오영석	10,713	0.01
남부산업(주)	3,555,140	4.60
이순산업(주)	1,526,069	1.97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우리사주조합	53,184	0.07
자기주식(직접보유)	4,068,339	5.26
기타	43,228,525	55.91
합 계	77,310,863	100.00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속기업 등의 현황은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0년 2월 27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0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가 처음 적용되었으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실체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은 최초 적용되는 기준서의 주요 영향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로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도입 결과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고,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채택에 따라 인식된 조정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으로 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해당 리스부채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리스이용자의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은 3.58%입니다.

리스계약에 대한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에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미지급한 리스료 금액을 조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최초 적용일 현재 사용권자산의 조정이 요구되는 손실부담리스는 없었습니다.

①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금융업)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당기초
사용권자산		
토지	231,734	464,887
건물	5,780,925	11,507,337
차량운반구	4,035,859	6,201,471
합계	10,048,518	18,173,695
리스부채		
유동	5,487,622	8,099,443
비유동	6,709,010	12,469,213
합계	12,196,632	20,568,656

당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3,664,339천원입니다.

전기말에 공시된 운용리스약정을 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최초적용일에 인식된 리스부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 할인액	23,080,166
가산: 전기말에 인식된 금융리스부채	-
(차감): 정액법으로 비용 인식한 단기리스료	2,210,649
(차감): 정액법으로 비용 인식한 소액자산리스료	300,861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가산(차감):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 차이로 인한 조정	-
가산(차감): 변동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지수나 요율의 변동과 관련된 조정	-
최초 적용일 현재 인식된 리스부채	20,568,656
유동리스부채	8,099,443
비유동리스부채	12,469,213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최초 적용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의 다음 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포함된 리스채권: 2,400,898천원 증가
- 사용권자산: 18,173,695천원 증가
- 기타유동자산에 포함된 선급비용: 5,937천원 감소
- 리스부채: 20,568,656천원 증가

최초 적용일 현재 이익잉여금 조정은 없습니다.

(금융업)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당기초
사용권자산		
토지	-	-
건물	917,864	2,997,578
차량운반구	407,055	375,101
합계	1,324,919	3,372,679
리스부채	1,263,682	3,077,877
합계	1,263,682	3,077,877

당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308,814천원입니다.

전기말에 공시된 운용리스약정을 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최초적용일에 인식된 리스부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 할인액	3,092,452
가산: 전기말에 인식된 금융리스부채	-
(차감): 정액법으로 비용 인식한 단기리스료	-
(차감): 정액법으로 비용 인식한 소액자산리스료	14,575
가산(차감):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 차이로 인한 조정	-
가산(차감): 변동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지수나 효율의 변동과 관련된 조정	-
최초 적용일 현재 인식된 리스부채	3,077,877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최초 적용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의 다음 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 사용권자산: 3,372,679천원 증가
- 임차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294,802천원 감소
- 리스부채: 3,077,877천원 증가

최초 적용일 현재 이익잉여금 조정은 없습니다.

②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서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토지	308,215	-
건물	6,440,283	-
차량운반구	3,601,030	-
합계	10,349,528	-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금융비용에 포함)	754,406	-
단기리스료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4,956,572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591,766	-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77,314,596	-

당기 중 리스대상부채 원금상환에 의한 총 현금 유출은 10,882,661천원이며, 사용권 자산으로 인한 전대리스 수익은 78,941천원 입니다.

③ 실무적 간편법의 사용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면서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특성이 상당히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단일 할인율의 적용
-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인지에 대한 종전 평가에 의존한 사용권자산의 손상검토
- 최초 적용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운용리스를 단기리스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
-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
- 연장선택권이나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결정에 사후판단 사용

또한 연결실체는 최초 적용일 현재 계약이 리스에 해당하는지 또는 리스가 내재되었는지를 재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초 적용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개정기준서는 중도상환 또는 중도환매를 허용하는 채무상품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의 보상이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개정기준서는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하여 잔여 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이 감소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개정기준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이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_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해석서는 기업이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이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고려하여 그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

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하며,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등을 산정할 때에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기준서는 배당의 모든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의 거래나 사건을 어디에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기준서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후에도 특정차입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계산할 때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공동영업인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그 취득일 직전에 해당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재측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업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개정기준서는 기업이 취득한 대상이 '사업'인지 아니면 '개별 자산취득'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취득한 대상이 사업이라고 판단 내리기 위해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산출물을 보다 좁게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수 구성요소 중 과정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취득한 대상이 사업이 아닌지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기준서는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고 기술함으로써 개념체계를 포함한 기준서간 중요성의 정의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국제회계기준)를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실체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실체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

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다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실체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

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연결실체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결실체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실체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며,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연결실체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

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8)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 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

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연결실체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180일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연결실체는 채무증권의 신용위험등급이 국제적으로 '투자등급'의 정의로 이해되는 수준인 경우 신용위험이 낮다고 간주합니다. 연결실체는 이것을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또는 나이스신용평가주식회사의 BBB-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

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실체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 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 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제품은 월별 총평균법, 원재료 및 상품은 지속적인 이동평균법(인테리어 부문 원재료 및 상품은 월별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 ~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입목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건물	20 ~ 40 년
구축물	15 ~ 40 년
기계장치	5 ~ 15 년
선박	12 년
차량운반구	4 ~ 6 년
공기구비품	3 ~ 6 년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모래항만부두를 항만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서 연결실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광업권	20 ~ 40 년
사용수익기부자산	11 년
소프트웨어	5 ~ 10 년
산업재산권	5 ~ 10 년
기타무형자산	5년,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

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3) 영업권 및 첨가매수차익

연결실체는 사업결합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가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당기손익(첨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이전하는 자산,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하며,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서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 이전의 사업결합과 관련한 영업권은 연결실체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된 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으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

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① 연결실체가 리스 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리스부채' 또는 '비유동성리스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② 연결실체가 리스 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1) 금융리스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리스에서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에서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다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한도로 매출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로서 부담하는 금융리스 체결원가는 리스개시일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수익은 리스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며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비슷한 자산의 보통 감가상각 정책과 일치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판매후 리스거래

자산 이전이 판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합니다. 이에 따

라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의 금액만을 인식합니다.

자산 판매대가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리스료의 선급이나 구매자가 제공한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 전환사채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9) 자기주식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0) 수익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① 계약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계약으로 식별하고 계약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수행의무의 식별 등 이후 단계를 추가 검토하여 수익인식여부를 판별하며, 계약으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나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③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한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반품가능성을 과거의 경험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변동대가에 반영하고, 수행의무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④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 평가조정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⑤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의무를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수행하여 자산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연결실체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으나 현재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익은 연결실체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수익은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할 때 인식하며, 통

제한 시점에 또는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지 판단이 요구됩니다.

(21)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인식합니다.

(20)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

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

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

주석 2에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것과는 별개인 중요한 판단으로서, 이는 경영진이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것이며,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1)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나,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손상된 자산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어떤 것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양적·질적인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상 검사 - 영업권

영업권 장부금액 24,617백만원이 배분된 레미콘사업부의 회수가능액 평가에 따르면, 경영진은 레미콘 사업부에 배분된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은 차기연도 사업계획 달성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서, 현재 및 예상되는 시장상황을 기반으로 한 수익, 급여 및 간접비용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레미콘사업부'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대부분을 경영진이 관리할 수 있으나, 사업의 성격과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익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연결실체는 특정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60과 주석61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4. 종속기업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소유지분율(%)		소재지	사용 재무제표일	업종
	당기말	전기말			
한국통운(주)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화물운수업

회사명	소유지분율(%)		소재지	사용 재무제표일	업종
	당기말	전기말			
(주)지구레미콘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레미콘 제조
현대개발(주)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레미콘 제조
동화기업(주)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골프장 운영업
유진엠(주)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방송제작업
유진로텍(주)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골프장 운영업
유진AMC(유)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주택임대업 및 상가건물임대업
유진아이티서비스(주)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유진홈데이(*1)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도매 및 소매업
(주)나눔로또(*3)	99.68	51.55	대한민국	12월 31일	복권발행 및 판매업
유진엠플러스(주)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서비스 도매업
유진프라이빗에쿼티(주)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경영컨설팅업
유진에스비홀딩스(주)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특수목적회사
(주)유진저축은행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상호저축은행업
한국로지스틱스(주)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화물운수업
굿앤파트너스(주)(*2)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서비스 인력공급업
천안기업(주)(*2)	80.88	80.88	대한민국	12월 31일	부동산임대업
성인산업(주)(*2)	70.00	70.00	대한민국	12월 31일	건설업
당진기업(주)(*2)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31일	레미콘 제조
농업회사법인 유진개발(주)(*4)	90.00	-	대한민국	12월 31일	작물재배 지원

(*1) 전기 중 유진디에프앤씨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유진홈데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 전기 중 신규로 연결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입니다.

(*3) 당기 중 (주)나눔로또의 통합복권발행 위수탁사업 만료에 따른 이익을 기존주주에게 배분하고자 유상감자를 시행하여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4) 당기 중 신규로 연결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입니다.

(2) 연결대상 범위의 변동

① 종속기업의 취득

당기 중 신규로 연결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회사명	사유
농업회사법인 유진개발(주)	지배기업은 당기 중 신설된 농업회사법인 유진개발(주)의 지분 90% 취득하였습니다.

② 종속기업의 처분

당기 중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①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유진기업(주)	1,445,770	665,132	780,638	806,998	22,597	24,042
한국통운(주)	89,354	64,485	24,869	250,945	1,480	1,591
(주)지구레미콘	9,277	7,903	1,374	7,024	(36)	(6)
현대개발(주)	26,963	11,654	15,310	24,480	(255)	(359)
동화기업(주)	78,711	48,840	29,871	16,709	3,063	2,879
유진엠(주)	5,897	2,402	3,495	12,904	(45)	(39)
유진로텍(주)	81,831	65,320	16,511	18,933	3,119	3,125
유진AMC(유)	104,599	38,669	65,930	9,983	256	243
유진아이티서비스(주)	2,654	853	1,801	5,407	(769)	(451)
(주)유진홈데이	11,923	17,274	(5,351)	16,417	(10,681)	(11,005)
(주)나눔로또	8,986	5,133	3,852	-	(1,257)	(1,250)
유진엠플러스(주)	541	780	(239)	3,245	(124)	(118)
유진프라이빗에쿼티(주)	10,730	3,119	7,611	6,736	3,026	2,998
유진에스비홀딩스(주)	2,907,226	2,840,700	66,526	306,843	(4,427)	(4,966)
(주)유진저축은행	2,899,118	2,559,825	339,293	298,105	52,131	51,592
한국로지스틱스(주)	13,009	12,013	996	15,193	666	666
굿앤파트너스(주)	2,398	2,047	351	10,908	242	242
천안기업(주)	73,618	54,988	18,630	6,711	1,569	1,571
성인산업(주)	16,938	16,970	(33)	7,268	(467)	(474)
당진기업(주)	18,404	13,349	5,055	5,877	(1,960)	(1,945)
농업회사법인 유진개발(주)	1,173	2	1,171	-	(11)	(11)

②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유진기업(주)	1,506,385	739,767	766,618	780,987	23,389	18,772
한국통운(주)	81,807	63,592	18,215	243,647	(1,851)	(1,952)
(주)지구레미콘	10,342	8,962	1,380	10,683	681	640
현대산업(주)(*1)	-	-	-	9,424	200	(65)
고흥레미콘(주)(*1)	-	-	-	66	289	289
흥한레미콘(주)(*1)	-	-	-	98	90	90
(주)현대콘크리트(*1)	-	-	-	58	(19)	(19)
현대레미콘(주)(*1)	-	-	-	69	175	175
현대기업(주)(*1)	-	-	-	-	51	51
(주)서진개발(*1)	-	-	-	-	(407)	(407)
현대개발(주)	26,208	10,540	15,669	24,323	912	800
(주)현대개발(*1)	-	-	-	-	64	64
동화기업(주)	80,398	53,407	26,991	15,959	2,517	2,280
유진아이티디(주)(*1)	-	-	-	-	(196)	(196)
유진엠(주)	6,542	2,578	3,964	15,536	584	568
유진로텍(주)	76,695	63,309	13,386	16,985	2,587	2,587
유진AMC(유)	104,420	38,733	65,687	10,824	(12,917)	(13,061)
유진아이티서비스(주)	3,505	1,432	2,073	8,182	723	379
유진엔랩(주)(*1)	-	-	-	-	(484)	(484)
(주)유진홈데이	12,203	6,549	5,654	20,665	(8,833)	(8,833)
(주)나눔로또	41,071	2,658	38,413	55,910	6,533	6,620
유진엠플러스(주)	987	1,108	(121)	3,459	(204)	(215)
유진바이오에너지(주)(*1)	-	-	-	-	(360)	(360)
유진프라이빗에쿼티(주)	5,691	1,078	4,613	3,220	865	646
유진에스비홀딩스(주)	2,425,723	2,354,231	71,492	273,049	18,518	17,808
(주)유진저축은행	2,416,705	2,123,999	292,706	264,222	35,926	34,959
대전로지스틱스(주)(*1)	-	-	-	2,540	150	150
한국로지스틱스(주)	13,478	13,148	330	14,650	381	381
경인로지스틱스(주)(*1)	-	-	-	918	(31)	(31)
부산로지스틱스(주)(*1)	-	-	-	1,065	40	40
중부로지스틱스(주)(*1)	-	-	-	1,118	47	47
굿앤파트너스(주)	1,045	937	108	3,601	8	8
천안기업(주)(*2)	74,269	57,210	17,059	3,275	761	1,121
선진엔티에스(주)(*2)	-	-	-	6,058	18	52
한라휴업(주)(*2)	-	-	-	-	(10)	(10)
성인산업(주)(*2)	15,169	14,614	555	-	-	-
당진기업(주)(*2)	20,127	13,127	7,000	-	-	-

(*1) 손익 재무정보는 합병 이전 재무성과입니다.

(*2) 손익 재무정보는 연결 범위 변동 후부터 합병이전까지의 재무성과입니다.

5. 종속기업의 취득

① 일반사항

연결실체는 지분확대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 7월 13일 특수관계자로부터 천안기업주식회사의 보통주 378,200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842,104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2018년 7월 13일 선진엔티에스주식회사 보통주 10,000주를 인수하였습니다.

이 거래로 전기 중 연결실체는 선진엔티에스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보유하여 선진엔티에스주식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선진엔티에스주식회사가 연결로 편입됨에 따라 선진엔티에스주식회사의 100% 종속기업인 한라홍업주식회사도 연결실체로 신규 편입되었으며, 선진엔티에스주식회사의 취득자산 및 인수부채는 선진엔티에스주식회사의 연결실체 입장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선진엔티에스주식회사 및 한라홍업주식회사는 2018년 12월 31일 종속기업인 한국통운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골재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2018년 11월 30일 성인산업주식회사의 보통주 70,000주를 인수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지분확대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 12월 7일 특수관계자로부터 당진기업주식회사의 보통주 294,904주를 추가취득하였습니다.

② 이전대가

전기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의 주요 종류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천안기업(주)	선진엔티에스(주)	성인산업(주)	당진기업(주)	합계
현금	11,841,830	1,547,490	3,885,000	7,048,206	24,322,526

③ 전기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천안기업(주)	선진엔티에스(주)	성인산업(주)	당진기업(주)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23,923	803,533	713,167	6,299,993
재고자산	-	136,838	19,491	179,07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60	1,840,251	790,350	2,051,719
기타유동자산	9,710	61,765	201,237	16,144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000	41,000	91,860	17,526
장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10,000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753,978	-	-	3,803
유무형자산(*)	-	2,263,091	18,353,738	11,549,396
투자부동산(*)	79,146,912	-	-	-
기타비유동자산	-	-	-	-
이연법인세자산	124,130	52,527	-	-
소 계	81,369,313	5,199,005	20,169,843	20,127,653
부 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21,293	2,208,384	1,238,711	2,055,839
단기부채	2,320,000	731,727	10,315,029	7,700,000
유동성장기부채	2,400,000	-	1,371,333	-
기타유동부채	215,789	-	35,379	77,077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3,075,946	-	-	17,598
장기부채	51,400,000	-	210,881	-
퇴직급여채무	29,728	336,432	203,576	1,432,570
기타총당부채	-	-	1,244,934	-
이연법인세부채	-	-	-	1,844,38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78,700	-	-	-
기타비유동부채	186,548	-	-	-
소 계	60,028,004	3,276,543	14,619,843	13,127,469
식별가능한 순자산 총계	21,341,309	1,922,462	5,550,000	7,000,184

(*) 취득한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천안기업(주)	선진엔티에스(주)	성인산업(주)	당진기업(주)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74,327,470	929,820	12,803,738	11,549,396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차이조정	4,819,442	1,333,271	5,550,000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79,146,912	2,263,091	18,353,738	11,549,396

④ 영업권 및 잉가매수차익

전기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잉가매수차익(영업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천안기업(주)	선진엔티에스(주)	성인산업(주)	당진기업(주)
이전대가	11,841,830	1,547,490	3,885,000	7,048,206
이전보유지분공정가치	1,109,283	-	-	3,907,554
비지배지분	4,080,616	-	1,665,000	-
소 계	17,031,729	1,547,490	5,550,000	10,955,760
순자산공정가치	21,341,309	1,922,462	5,550,000	7,000,184
잉가매수차익(영업권)	4,309,580	374,972	-	(3,955,576)

⑤ 현금흐름정보

전기 사업결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천안기업(주)	선진엔티에스(주)	성인산업(주)	당진기업(주)	합 계
주식 매입대금	(11,841,830)	(1,547,490)	(3,885,000)	(7,048,206)	(24,322,526)
취득한 종속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323,923	803,533	713,167	6,299,993	8,140,616
순현금 유입액	(11,517,907)	(743,957)	(3,171,833)	(748,213)	(16,181,910)

6. 중단영업

연결실체는 유진홈센터 사업부문 전체를 2018년 3월에 매각하였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실체의 주요 사업역량인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적 결정

에 따라 2018년 초에 동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 전기 중 중단영업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전기
수익	3,869
비용	(1,662,724)
영업활동손익	(1,658,855)
법인세수익	401,443
중단영업손익	(1,257,412)

(2) 전기 중 중단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16,75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16,756
중단영업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 전기 중 유진홈센터 사업부문의 처분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재고자산	(1,773,24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5)
기타유동자산	(22,576)
장기성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51,379)
유형자산	(2,383,52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921,035
기타유동부채	5,621

(단위: 천원)	
구분	금액
확정급여부채	577,086
순자산감소	(3,227,157)
처분대가	3,227,157
처분된 현금및현금성자산	-
순현금유입액	3,227,157

※ 상세한 주식사항은 2020년 3월 1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별도 재무제표

①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6 기 2019. 12. 31 현재

제 35 기 2018. 12. 31 현재

유진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자산		
Ⅰ. 유동자산	402,293,517,435	371,612,094,494
(1)현금및현금성자산	78,122,543,005	94,503,591,247
(2)재고자산	8,692,364,182	8,768,268,436
(3)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5,478,798,565	219,086,092,326
(4)기타의 유동자산	139,999,811,683	49,254,142,485
Ⅱ. 비유동자산	1,039,940,164,979	1,134,772,866,458
(1)유형자산	217,487,759,254	220,070,519,944
(2)투자부동산	88,412,379,651	88,881,208,137
(3)무형자산	8,128,578,591	7,819,934,890
(4)관계기업 투자	382,891,066,058	415,150,720,806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5)기타비유동자산	343,020,381,425	402,850,482,681
자산총계	1,442,233,682,414	1,506,384,960,952
부채		
Ⅰ. 유동부채	468,556,842,024	647,407,485,281
Ⅱ. 비유동부채	196,574,824,685	92,359,302,448
부채총계	665,131,666,709	739,766,787,729
자본		
Ⅰ. 자본금	38,655,431,500	38,561,033,500
Ⅱ. 자본잉여금	495,182,169,411	494,201,506,851
Ⅲ. 자본조정	(26,517,771,608)	(40,573,764,197)
Ⅳ. 기타자본	(3,815,327,362)	(18,494,290,493)
Ⅴ. 적립금	12,391,338,253	11,295,532,333
Ⅵ. 이익잉여금	261,206,175,511	281,628,155,229
자본총계	777,102,015,705	766,618,173,223

②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36 기 2019. 12. 31 현재

제 35 기 2018. 12. 31 현재

유진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Ⅰ. 매출액	806,997,639,924	780,987,279,013
Ⅱ. 매출원가	(704,715,617,028)	(661,510,034,113)
Ⅲ. 매출총이익	102,282,022,896	119,477,244,900
Ⅳ. 판매비와 관리비	(61,207,788,061)	(61,289,440,659)
Ⅴ. 영업이익(손실)	41,389,755,138	57,859,477,279
Ⅵ. 기타수익	21,376,373,809	10,232,735,441
Ⅶ. 기타비용	(59,180,717,923)	(38,813,470,138)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VIII. 금융수익	46,155,674,467	24,704,912,600
IX. 금융비용	(26,922,854,373)	(42,485,204,851)
X. 지분법이익	12,399,870,150	18,993,130,908
XI.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35,218,101,268	30,491,581,239
XII. 법인세비용(수익)	17,122,825,617	5,634,241,270
XIII. 중단영업이익(손실)	-	(1,467,654,751)
XIV. 당기순이익(손실)	18,095,275,651	23,389,685,218
XV. 기타포괄손익	2,372,679,863	(4,618,174,445)
XVI. 총포괄손익	20,467,955,514	18,771,510,773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6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처분예정일 : 2020년 3월 27일

제 35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처분확정일 : 2019년 3월 27일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I. 미처분 이익잉여금	261,206,175,511	281,628,155,229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전기 배당금 : 보통주 1주당 150원 - 당기 배당금 : 보통주 1주당 150원	-	(26,109,857,709)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61,206,175,511	255,518,297,520

④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36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제 35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자본	적립금	이익 잉여금	총 계
2018년 01월 01일 (전기초)	37,750,665,000	477,282,638,595	(41,723,991,697)	(18,488,634,561)	10,258,543,693	273,231,522,020	738,310,563,05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23,389,685,218	23,389,685,218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1,245,471,423)	(1,245,471,423)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재측정요소)	-	-	-	-	-	(2,765,997,375)	(2,765,997,375)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4,588,906	-	-	4,588,906
-지분법자본변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322,466,753)	-	-	(322,466,753)
-지분법자본변동(당기순익-공정가치인식지정금융부채)	-	-	-	(13,232,196)	-	-	(13,232,196)
-파생상품평가손익	-	-	-	(33,173,974)	-	-	(33,173,974)
-지분법자본변동(파생상품평가손익)	-	-	-	(147,577,419)	-	-	(147,577,419)
-지분법자본변동(해외사업환산)	-	-	-	(94,824,211)	-	-	(94,824,211)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606,705,647)	-	(4,011,468,798)	(4,618,174,445)
총포괄손익 합계	-	-	-	(606,705,647)	-	19,378,216,420	18,771,510,773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자기주식의 처분	(1,150,227,500)	-	1,150,227,500	-	-	-	-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1,960,576,000	23,645,820,693	-	-	-	-	25,606,396,69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등	-	-	-	(85,226,755)	-	85,226,755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등	-	-	-	701,248,665	-	(701,248,665)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자본변동	-	-	-	6,444,813	-	-	6,444,813
-이익잉여금의 법정적립금 적립	-	-	-	-	1,036,988,640	(1,036,988,640)	-
-배당금의 지급	-	-	-	-	-	(10,369,886,400)	(10,369,886,400)
-지배력 획득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효과	-	-	-	(681,593)	-	(57,357,669)	(58,039,262)
-종속기업의 합병	-	(6,726,952,427)	-	(20,535,415)	-	1,098,671,408	(5,648,816,43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810,348,500	16,918,868,256	1,150,227,500	601,249,715	1,036,988,640	(10,981,583,211)	9,536,099,400
2018년 12월 31일 (전기말)	38,561,033,500	494,201,506,851	(40,573,764,197)	(18,494,290,493)	11,295,532,333	281,628,155,229	766,618,173,223
2019년 01월 01일 (당기초)	38,561,033,500	494,201,506,851	(40,573,764,197)	(18,494,290,493)	11,295,532,333	281,628,155,229	766,618,173,223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18,095,275,651	18,095,275,651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1,856,594,183	1,856,594,183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재측정요소)	-	-	-	-	-	(592,095,184)	(592,095,184)
-파생상품평가손익	-	-	-	(9,703,830)	-	-	(9,703,830)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281,440,891	-	-	281,440,891
-지분법자본변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629,766,329	-	-	629,766,329
-지분법자본변동(당기순익-공정가치인식지정금융부채)	-	-	-	86,689,316	-	-	86,689,316
-지분법자본변동(파생상품평가손익)	-	-	-	(221,266,738)	-	-	(221,266,738)
-지분법자본변동(해외사업환산)	-	-	-	341,254,866	-	-	341,254,866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1,108,180,864	-	1,264,498,999	2,372,679,863
총포괄손익 합계	-	-	-	1,108,180,864	-	19,359,774,650	20,467,955,51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94,398,000	980,662,560	-	-	-	-	1,075,060,56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등	-	-	-	(102,520,475)	-	102,520,475	-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 처분	-	-	-	13,865,062,138	-	(13,865,062,138)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10,918,544	-	-	10,918,544
-이익잉여금의 법정적립금 적립	-	-	-	-	1,095,805,920	(1,095,805,920)	-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자본	적립금	이익 잉여금	총 계
-배당금의 지급	-	-	-	-	-	(10,968,059,200)	(10,968,059,200)
-이익잉여금의 처분	-	-	14,055,992,589	-	-	(14,055,992,589)	-
-종속기업의 유상감자	-	-	-	(222,754,335)	-	-	(222,754,335)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변동	-	-	-	-	-	72,042,454	72,042,454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변동	-	-	-	76,395	-	38,602,550	38,678,94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94,398,000	980,682,560	14,055,992,589	13,570,782,267	1,095,805,920	(39,781,754,368)	(9,984,113,032)
2019년 12월 31일 (당기말)	38,655,431,500	495,182,169,411	(26,517,771,608)	(3,815,327,362)	12,391,338,253	261,206,175,511	777,102,015,705

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36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제 35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9,429,103,774	20,128,189,124
1. 당기순이익(손실)	18,095,275,651	23,389,685,218
2. 조정	42,165,057,941	42,171,020,502
3. 자산, 부채의 증감	1,280,760,412	(33,648,050,485)
4. 법인세의 환급(납부)	(12,111,990,230)	(11,784,466,11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159,453,274	(44,319,815,222)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3,965,075,012)	43,915,537,059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 + II + III)	(16,376,517,964)	19,723,910,961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94,503,591,247	74,745,220,240
VI. 환율변동효과	(4,530,278)	34,460,046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IV+V)	78,122,543,005	94,503,591,247

⑥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당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유진기업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유진기업주식회사("당사")는 레미콘의 제조, 판매와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1984년 6월 1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457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천 및 수도권지역 내외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1994년 9월 30일에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보통주 38,655,432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유경선	8,919,594	11.54
유창수	5,295,857	6.85
유순태	3,389,412	4.38
유재필	1,919,916	2.48
유석훈	2,365,259	3.06
구금숙	1,839,456	2.38
유정운	120,152	0.16
유정민	123,246	0.16
유승연	4,370	0.01
유정연	4,420	0.01
유동진	222,400	0.29
유호성	217,157	0.28
노시은	210,000	0.27
이정화	205,000	0.27
최종성	32,654	0.04
오영석	10,713	0.01
남부산업(주)	3,555,140	4.60
이순산업(주)	1,526,069	1.97
우리사주조합	53,184	0.07
자기주식	4,068,339	5.26
기타	43,228,525	55.91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합 계	77,310,863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당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당사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당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은 최초 적용되는 기준서의 주요 영향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

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도입 결과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고,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채택에 따라 인식된 조정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으로 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해당 리스부채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 리스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리스이용자의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은 3.58%입니다.

리스계약에 대한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에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미지급한 리스료 금액을 조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최초 적용일 현재 사용권자산의 조정이 요구되는 손실부담리스는 없었습니다.

①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당기초
사용권자산		
토지	149,539	430,524
건물	1,922,176	4,973,584
차량운반구	2,989,289	4,770,049
합계	5,061,004	10,174,157
리스부채		
유동	3,985,903	6,413,807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당기초
비유동	3,121,991	6,155,311
합계	7,107,894	12,569,118

당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1,272,455천원입니다.

전기말에 공시된 운용리스약정을 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최초적용일에 인식된 리스부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 할인액	14,170,670
가산: 전기말에 인식된 금융리스부채	-
(차감): 정액법으로 비용 인식한 단기리스료	1,445,084
(차감): 정액법으로 비용 인식한 소액자산리스료	156,466
가산(차감):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 차이로 인한 조정	-
가산(차감): 변동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지수나 요율의 변동과 관련된 조정	-
최초 적용일 현재 인식된 리스부채	12,569,118
유동리스부채	6,413,807
비유동리스부채	6,155,311

②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토지	281,939	-
건물	3,295,063	-
차량운반구	2,669,832	-
합계	6,246,834	-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금융비용에 포함)	365,122	-
단기리스료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2,342,113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83,502	-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73,350,874	-

당기 중 리스대상부채 원금상환에 의한 총 현금 유출은 6,819,507천원이며, 사용권 자산으로 인한 전대리스 수익은 78,700천원 입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최초 적용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다음 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포함된 리스채권: 2,400,899천원 증가
- 사용권자산: 10,174,157천원 증가
- 기타유동자산에 포함된 선급비용: 5,937천원 감소
- 리스부채: 12,569,118천원 증가

최초 적용일 현재 이익잉여금 조정은 없습니다.

③ 실무적 간편법의 사용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면서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특성이 상당히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단일 할인율의 적용
-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인지에 대한 종전 평가에 의존한 사용권자산의 손상검토
- 최초 적용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운용리스를 단기리스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

-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
- 연장선택권이나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결정에 사후판단 사용

또한 당사는 최초 적용일 현재 계약이 리스에 해당하는지 또는 리스가 내재되었는지를 재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초 적용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개정기준서는 중도상환 또는 중도환매를 허용하는 채무상품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의 보상이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개정기준서는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하여 잔여 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이 감소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개정기준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이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_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해석서는 기업이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이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고려하여 그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하며,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등을 산정할 때에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기준서는 배당의 모든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의 거래나 사건을 어디에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기준서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후에도 특정차입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계산할 때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공동영업인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그 취득일 직전에 해당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면,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재측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개정기준서는 기업이 취득한 대상이 '사업'인지 아니면 '개별 자산취득'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취득한 대상이 사업이라고 판단 내리기 위해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산출물을 보다 좁게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수 구성요소 중 과정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취득한 대상이 사업이 아닌지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기준서는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고 기술함으로써 개념체계를 포함한 기준서간 중요성의 정의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 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당사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180일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

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당사는 채무증권의 신용위험등급이 국제적으로 '투자등급'의 정의로 이해되는 수준인 경우 신용위험이 낮다고 간주합니다. 당사는 이것을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또는 나이스신용평가주식회사의 BBB-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

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역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

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제품은 월별 총평균법, 원재료 및 상품은 계속적인 이동평균법(인테리어 부문 원재료 및 상품은 월별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 ~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입목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건물	20 ~ 40 년
구축물	20 ~ 40 년
기계장치	12 년
선박	12 년
차량운반구	6 년
공기구비품	6 년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모래항만부두를 항만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서 당사는 시설물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광업권	20 ~ 40 년
사용수익기부자산	11 년
소프트웨어	5 ~ 10 년
산업재산권	5 ~ 10 년
기타의무형자산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1) 영업권 및 염가매수차익

당사는 사업결합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가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당기손익(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이전하는 자산,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당사가 발행한 지분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하며,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서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 이전의 사업결합과 관련한 영업권은 당사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된 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으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

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① 당사가 리스 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중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리스부채' 또는 '비유동성리스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

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② 당사가 리스 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1) 금융리스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리스에서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에서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다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한도로 매출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로서 부담하는 금융리스 체결원가는 리스개시일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수익은 리스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며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비슷한 자산의 보통 감가상각 정책과 일치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판매후 리스거래

자산 이전이 판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합니다. 이에 따라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합니다.

자산 판매대가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리스료의 선급이나 구매자가 제공한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전환사채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7) 자기주식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8) 수익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① 계약의 식별

당사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계약으로 식별하고 계약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수행의무의 식별 등 이후 단계를 추가 검토하여 수익인식여부를 판별하며, 계약으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나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③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한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반품가능성을 과거의 경험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변동대가에 반영하고, 수행의무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④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평가조정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⑤ 수익인식

당사는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의무를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수행하여 자산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당사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으나 현재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익은 당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수익은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할 때 인식하며, 통

제한 시점에 또는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지 판단이 요구됩니다.

(19)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 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 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인식합니다.

(20)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

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당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

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

주석 2에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것(주석 3.(2) 참고)과는 별개인 중요한 판단으로서, 이는 경영진이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것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1)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나,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손상된 자산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어떤 것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양적·질적인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상 검사 - 영업권

영업권 장부금액 24,617백만원이 배분된 레미콘사업부의 회수가능액 평가에 따르면, 경영진은 레미콘 사업부에 배분된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은 차기연도 사업계획 달성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서, 현재 및 예상되는 시장상황을 기반으로 한 수익, 급여 및 간접비용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레미콘사업부'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대부분을 경영진이 관리할 수 있으나, 사업의 성격과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익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당사는 특정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식39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분석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4. 중단영업

당사는 유진홈센터 사업부문 전체를 2018년 3월에 매각하였습니다. 경영진은 당사의 주요 사업역량인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적 결정에 따라 2018년 초에 동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전기 중 중단영업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전기
수익	3,869
비용	(1,940,089)
영업활동손익	(1,936,220)
법인세비용	468,565
중단영업손익	(1,467,655)

전기 중 중단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16,75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16,756
중단영업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유진홈센터사업부문의 처분으로 인한 당사의 재무상태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재고자산	(1,773,24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5)
기타유동자산	(22,576)
장기성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51,379)
유형자산	(2,383,524)
기타비유동자산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921,035

(단위: 천원)	
구분	금액
기타유동부채	5,621
확정급여부채	577,086
순자산감소	(3,227,157)
처분대가	3,227,157
처분된 현금및현금성자산	-
순현금유입액	3,227,157

※ 상세한 주식사항은 2020년 3월 1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제36기 배당액 : 보통주 1주당 150원

* 제35기 배당액 : 보통주 1주당 150원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99 <생략>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99 <생략, 현행과 동일> 100.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 101.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보관, 유통, 판매업 102. 농기계, 농업설비 및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제작 판매업 103.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과 농작업 대행에 관한 사업 104. 농축산업의 경영 105.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106. 관광농원 주말농원의 설치 및 운영업 107.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개정(추가) 향후 경영계획반영 - 추가사항 기재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주주총회 결의 후 시행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신현식	1965.12.11	X	계열사 임원	이사회
김정렬	1962.10.17.	O	없음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신현식	유진기업 경영자문협의회 사무총괄	'19 ~ 現) '11 ~ '18 '02 ~ '10 '99 ~ '02 '94 ~ '99	유진기업 경영자문협의회 사무총괄 유진기업 정보전략총괄 (주)CJ오쇼핑 상무이사 삼성건설링그룹 전무이사 삼성물산(주) 경영기획팀 근무	없음
김정렬	옥산유통(주) 영업 및 관리 총괄 임원	'20 ~ 現) '92 ~ '16 '86 ~ '92	옥산유통(주) 영업 및 관리 총괄 Philip Morris Korea 재무 관리 삼성전자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신현식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정렬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

- 사외이사 김정렬 후보자는 재무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기업에서 축적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본 후보자가 가진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은 회사의 재무적 의사결정 역량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사외이사 김정렬 후보자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4), 경업금지(상법 제397조),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상법 제397조의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 등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 신현식 사내이사 후보

- 국내 다수의 기업에서 다양한 업무와 전문성을 축적

- 당사 입사 이후에는 다년간의 전략담당 업무를 역임하면서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

- 이런 다양한 경험과 역량은 회사의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회사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것으로 기대

-김정렬 사외이사 후보

- 국내다수의 기업에서 재무 관리 및 다양한 업무와 전문성을 축적

- 향후 회사의 경영에 있어 재무적 의사결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회사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실질적인 조언에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외이사의 직무인 업무집행 감시, 감독 수행과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지식의 제공할 것으로 기대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보고자 : 김정렬 (인) 

확인서_김정렬(사외이사)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보고자 : 신 현 식 (인)



확인서_신현식(사내이사)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9,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318백만원
최고한도액	9,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사내이사 오영석은 2019년8월31일 계열사 진출.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백만원
최고한도액	3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1.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0년 3월 27일

2.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개최 사유

- 당사는 금년도 정기주주총회를 가능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내부 결산일정, 자회사들과의 연결결산, 신규선임이사 및 등기이사의 주주총회 참석일정 조율, 주주총회 세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총분산 자율 준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사항

- 당사는 코스닥협회에서 주관하는 '주주총회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 하였습니다.

-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당해년도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 3/20(금), 3/25(수), 3/26(목), 3/27(금), 3/30(월)